

고등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박 광 배

신 민 섭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서울대학병원 소아정신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암시하는 한 중요한 결론은 나이가 어리거나 인지적 성숙도가 낮은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경험되는 스트레스가 귀인(attribution)이나 통제가능성(controllability)등의 인지적 이해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면에, 비교적 나이가 많거나 인지적 성숙도가 높은 청소년은 지각된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적 정보처리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살생각이 영향 받는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자료가 시사하는 또하나의 중요한 결론은 한국의 청소년들의 경우 자살생각이 주로 부모, 이성, 선생님과의 대인갈등(interpersonal conflict)에서 유발되고, 특히 이러한 대인갈등에 학업문제와 외모에 대한 고민이 큰 기여를 하는 듯하다. 이 결과들이 청소년들 자살생각의 예방전략에 대하여 의미하는 바가 논의되었다.

자살에 대한 충동을 “자아로부터의 도피(escape from self)”로 이론화한 Baumeister(1990)는 자살에 이르는 여섯단계의 인과과정(causal process)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대치 혹은 기준이 너무 높거나, 실제 현실적인 상태가 너무 낮아서 생기는 기대상황과 현실상황 사이의 괴리에 대한 경험의 존재하고; 둘째, 기대상황과 현실상황 사이의 괴리가 생기는 이유가 내적으로 귀인되어 자아에 대한 비난과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셋째, 위의 두가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아에 대한 인식과 의식화(self-awareness)가 첨예화되고; 넷째, 그로 인하여 자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상태(우울증)가 유발되며; 다섯째, 자아에 대한 의미심장한 고민(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냉소적

인 인지적 몰락상태(cognitive deconstruction)로 도피하려는 노력을 하지만 그러한 노력은 늘 좌절되게 마련이고, 따라서 자아에 대한 불쾌한 생각과 감정을 없애줄 수 있는 더 강력한 수단을 갈구하게 되며; 여섯째, 몰락된 정신상태(자아와 삶의 의미에 대한 냉소성)는 자살을 차마 못하게 하는 여러가지 심리적 기제들을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게 됨으로 결국 자살시도에 대한 수용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자살은 현실에서 존재하는 스트레스(기대상황과 현실상황의 괴리)와 그 스트레스들이 자아에 대하여 의미하는 바에 대한 의미심장한 인식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욕구가 상승하는 결과로서 초래된다는 이론이다(Baumeister, 1990).

박광배와 신민섭(1990)은 이 자살이론의 일부를 한국의 인문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인문계 고등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고, 따라서 자살에 대한 충동이 기대상황과 현실상황 사이의 괴리로부터 시작된다는 Baumeister의 이론을 검증하기에 적절한 전집 혹은 모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기대상황을 진학하기를 원하는 대학교와 학과의 입학난이도로, 현실상황을 현재의 학업실력으로 진학할 수 있는 대학교와 학과의 입학난이도로 각각 조작적 정의한 후, (1) 그 괴리가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2) 그 괴리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경우, 그 영향이 Baumeister가 상정한 단계들중 네번째 단계가 가정하듯이 부정적인 정서상태(우울증)에 의해서 매개되는지를 검증하였다.

위의 두가설들은 1학년과 2학년에서는 지지되지 않았지만 3학년에서 지지되었다. 박광배와 신민섭(1990)은 Baumeister의 자살충동이론이 한국의 인문계 고등학생들중 3학년에서만 지지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기대상황-현실상황의 괴리가 자살생각에 대하여 가지는 효과가 Baumeister가 두번째 단계로 상정한 내적 귀인(internal attribution)에 의하여 상호작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울증에 대한 Hyland(1987)의 통제이론(control theory)이 가정하듯이 기대상황-현실상황의 괴리에 대한 지각된 통제가능성(perceived controllability)에 의하여 상호작용될지도 모른다는 제안을 하였다. Baumeister의 이론은 기대상황-현실상황의 괴리의 원인이 내적으로 귀인되면 우울증이 유발되고, 따라서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지만, 그것이 내적으로 귀인되지 않으면 그 괴리가 궁극적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박광배와 신민섭(1990)의 연구에서 괴리의 효과가 3학년에서만 관찰되었는데, 3학년 학생들만 특별히 그 괴리의 원인을 내적 요인에 귀인한다고 믿기는 힘들다. 그보다는, 1학년 및 2학년 학생들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직 대학입시까지 많은 시간적

여유가 남아있고 그 동안 기대-현실의 괴리를 줄일(통제할)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반면, 3학년 학생들은 대학입시까지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고, 따라서 현실수준이 비교적 우수한 학생들만 통제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이 차이가 Baumeister의 이론이 3학년에서만 지지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는 추론이 더 합리적이다.

적어도 한국의 고등학생들의 경우 자살생각이나 우울증이 내적 귀인에 의한 상호작용에 의하여 증감하게될 가능성을 회박하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귀인과정(attribution process)은 개인의 신상에서 발생하는 제 현상들에 대한 고도의 인지작용을 통한 이해노력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신민섭 et al.(1990)은 한국 고등학생들의 자살생각은 현실에 대한 인지적인 숙지에 의해서 보다는 정서적, 혹은 감정적 동요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는 분석결과를 보고하였다. 즉,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적 평가(Beck, 1967; Beck et al., 1974)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우울한 기분이나, 분노감, 충동성에 의하여 자살생각에 이를 수 있고, 그러한 사고는 고통스런 현실을 회피하기 위한 것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이 맞다면 고등학생들의 자살생각은 불만족스러운 현실의 원인에 대한 내적 귀인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고등학생들의 자살생각이 현실에 대한 인지적인 평가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동요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박광배와 신민섭(1990)의 결과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문제를 제기한다. Baumeister(1990)의 자살충동이론은 기대상황 사이의 괴리에 의해 유발되는 스트레스가 자살충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선 부정적인 정서상태가 유발될 필요가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박광배와 신민섭(1990)의 연구결과는 이 가정이 고등학교 3학년에서 지지되고 있음

을 보여준다. 즉, 자살생각에 대하여 기대상황-현실상황의 괴리가 가지는 스트레스 효과는 고등학교 3학년에서 우울증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괴리와 자살생각은 유의미한 단순상관(zero-order correlation)을 가지지만, 우울증 점수를 함께 고려하면 괴리와 자살생각 사이의 여과된 상관(partial correlation)이 통계적 유의미 수준 이하로 떨어진다. 이 결과는 위에서 설명한 신민섭 et al. (1990)의 결과에 대한 해석(고등학생들의 자살생각이 인지적인 평가 이외의 요인들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에 다소 조심성을 가져야 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

박광배와 신민섭(1990), 그리고 신민섭 et al. (1990)의 연구에서 우울증을 측정하기 위해 이용된 척도들은 공히 우울증에 관한 대표적 인지이론들(Beck, 1967; Beck et al., 1974)에 기초하여 개발된 척도들이다. 따라서 이 척도들에 나타나는 우울증 점수들은 우울증의 인지적 속성을 강하게 반영한다고 보아진다. 개인은 생활속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는 그것의 원인이나 앞으로의 전망등에 대하여 인지적인 처리를 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그러한 인지적인 처리의 결과로서 자신이나 주변상황에 대하여 부정적인 혹은 비관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면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우울증에 대한 인지이론의 요지이다. 따라서 인지적인 처리를 거친 스트레스의 결과가 그러한 이론에 입각하여 개발된 척도들에 반영된다고 보아진다.

그러나 모든 스트레스가 그러한 인지적인 처리에 의하여 개인에게 숙지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개인이 스트레스의 원인이나 앞으로의 전망등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지 않은 채, 스트레스를 그 자체로서 경험하기도 한다. 그렇게 경험되는 스트레스는 우울증 보다는 일시적인 짜증이나 신경질로서 표현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신민섭 et al. (1990)의 주장처럼 만약 고등학생들의 자살생각이 인지적인 평가 이외의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

는다면, 여러가지 스트레스 요인들이 자살생각에 대해서 가지는 효과가 전부 그러한 우울증 척도들에 나타난 우울증 점수에 의해서 설명 혹은 매개되지 말아야 한다. 즉, 스트레스 요인들이 가지는 전체 효과중 일부는 우울증을 통하여 자살생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더라도, 그것의 많은 부분은 우울증을 통하지 않고 자살생각에 대하여 직접적인 효과를 보여야만 고등학생들의 자살생각이 인지적인 요소 이외의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보다 더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박광배와 신민섭(1990)의 연구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자료에서 이러한 패턴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즉, 3학년에서 자살생각에 대하여 가지는 괴리가 유발하는 스트레스의 효과가 전부 우울증 점수에 의하여 매개되었다. 이 결과는 신민섭 et al. (1990)의 결과와 상반되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한가지 가능한 해답은 인지적 기능의 성숙도에 있어서 같은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발달적 차이를 가지고 있고(Shaffer and Fisher, 1981), 그러한 차이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에서만 우울증이 대학입시와 관련한 스트레스 효과를 완벽하게 설명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직 인지성숙도가 낮아서 스트레스정보를 인지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자체로서 경험하는 반면에, 고학년의 경우에는 스트레스정보를 보다 인지적으로 숙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이 가설이 맞다면, 자살생각에 가지는 스트레스의 효과가 고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인지이론에 기초한 우울증 점수들에 의해 완벽하게 매개되지 못하는 반면에, 고학년에는 스트레스의 효과가 일단 인지적 우울증에 흡수되고 그 우울증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박광배와 신민섭(1990)의 연구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경우 기대-현실의 괴리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지만, 대학입시와 관련된 그러한 괴리가 실제로 설명할 수 있는 자살생각의 변량은 그것의 전체 변량중에 겨

우 7%에 지나지 않는 것이 주목되었다. 이것은 대학입시가 고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매우 중요한 요인들중의 하나임에는 틀림 없지만, 그러한 스트레스 요인들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닐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고등학생들은 심대청소년들 특유의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한 과정을 겪고 있으므로 자아개념의 위기, 부모 및 가족 구성원들과의 사회적 갈등, 동성 및 이성 관계에 있어서의 부적응, 충족되지 않는 성적 욕구, 등의 어려움과 더불어 학업 및 장래 문제에 대한 갈등과 고민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모든 스트레스 요인들중에 대학입시에 의한 스트레스가 과연 어느 정도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가지는지에 관한 실증적인 자료가 거의 전무한 형편이다. 이러한 자료의 빈곤은 고등학생들의 지도 및 상담, 그리고 학생 자신들의 적응노력에 있어서 미묘한 오류를 범하게 할 수 있다. 즉, 사회가 대학입시에 대한 관심 및 그로 인한 피해를 지나치게 확대함으로서 고등학생들의 지도 및 상담에 관계하는 부모, 선생님, 상담자들뿐만 아니라, 학생자신도 자기의 실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기 전에 그러한 문제가 대학입시에 의한 부담에 의해서 유발되었다고 성급히 기정사실화함으로서 빚나간 해결책과 치유방책 및 대처방안이 모색될 가능성이 있다. 단적으로 말해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여학생이 자살하게 된 원인은 학업 스트레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위에서 기술한 세가지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그 세가지 목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학입시에 의해 생기는 지각된 스트레스가 내적 귀인에 의하여 우울증 및 자살생각을 유발하는가? 아니면 지각된 통제가능성에 의하여 우울증 및 자살생각을 유발하는가? (2) 고등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1, 2, 3학년 모두에서 완벽하게 우울증에 의해 매개되는가? 아니면 고학년에서만 우울증에 의하여 완벽하게 매개되는가? (3) 고등학생

의 자살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지각된 스트레스 요인은 무엇인가?

방 법

1. 피험자

서울의 한강이남에 위치한 남, 여2개 고등학교 1, 2, 3학년생 609명에게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이들중 대학에 진학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제외한 512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는데, 1학년이 155명, 2학년이 171명, 그리고 3학년이 186명이었고, 남학생이 227명, 여학생이 285명이었다.

2. 조사도구

각 개인의 배경자료 및 우울증, 자살생각, 스트레스, 귀인유형, 그리고 통제가능성을 측정하는 질문지들이 사용되었다. 우울척도로는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CDI: Kovacs, 1981), Beck Hopelessness Scale(BHS: Beck and Weissman, 1974), 그리고 Beck Depression Inventory(BDI: Beck, 1976)가 이용되었다. 또한 자살에 대한 생각을 측정하는 도구로 Scale for Suicide Ideation(SSI: Beck, Kovacs, and Weissman, 1979)과 Reason for Living Inventory(RFL: Linhan, Goodstein, Nielson, and Chiles, 1983)가 이용되었다. SSI는 원래 임상면접을 통하여 임상가가 평정하는 3점 척도로 된 19문항으로 이루어진 검사이나, 본 연구에서는 많은 응답자들을 일일이 면담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박광배와 신민섭(1990), 그리고 신민섭 et al.(1990)의 연구에서 이용한 자기보고형 질문지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들중 SSI, CDI, BHS, 그리고 BDI의 한국어 번역본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는 위의 두 참고문헌에 자세히 보고되어 있다.

RFL은 모두 47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있고, 그

항목들이 6개의 하부척도를 이루고 있는 자기보고형 설문척도이다. 그러나 그 하부척도들중 일부는, 예를 들면 “자식에 대한 책임”, 고등학생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다. 또한 RFL의 저자들에 의한 연구에서 6개의 하부척도들중 “생존과 적응에 관한 믿음”이 자살생각 척도점수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RFL의 모든 항목을 사용하지 않고 “생존과 적응에 관한 믿음” 하부척도에 포함된 23개의 항목들을 이용하였다. 덧붙여서 한국의 문화적 특성상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가족에 대한 책임” 하부척도에 포함된 항목중 고등학생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2개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항목을 첨가하여, 총 28개 항목을 포함하는 RFL척도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28개의 RFL 항목들은 본 논문의 저자들이 서로 별도로 번역하고 각자의 번역을 대조한 후, 상이한 번역은 협의를 거쳐 결정하였다. 이 28개 항목들로 구성된 RFL에 대하여 본 연구의 응답자들로부터 산출된 신뢰도 계수 α 는 0.85였다. 이 척도항목들에 대한 반응을 토대로 각 응답자의 RFL점수를 산출할 때는 SSI의 점수와 방향이 일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낮은 점수가 살아야 할 이유가 많은 것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이 28개의 RFL항목들은 신민섭 et al.(1990)에 제시되었다.

고등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본 논문의 저자들에 의해서 구성된 13개의 항목에 의해 측정되었다. 고등학생들의 생활영역을 자신, 가정, 학업, 친구로 나누어 각 영역에서 경험하는 문제나 불만이 괴롭게 느껴지는 정도를 9점 척도에 표시하게 하였다(1=전혀 괴롭지 않다, 5=그저 그렇다, 9=몹시 괴롭다). 자신의 영역에서는 건강 문제, 외모에 대한 불만, 성격에 대한 불만, 지능에 대한 불만, 그리고 성(性)에 대한 욕구가 각각 괴롭게 느껴지는 정도를 표시하게 하였다. 가정영역에서는 부모님과과의 갈등, 형제와의 갈등, 경제적 문제가 각각 괴롭게 느껴지는 정도를 표시하게 하였다. 학업영역에서는 선생님과과의 갈등, 학업문

제, 장래문제가 각각 괴롭게 느껴지는 정도를 표시하게 하였다. 친구 영역에서는 친구(동성)문제, 이성문제가 각각 괴롭게 느껴지는 정도를 표시하게 하였다. 이 지각된 스트레스 문항들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귀인양식은 Seligman et al.(1979)이 자신들의 “학습된 무기력의 수정이론(reformulated learned helplessness theory)”을 검증하기 위하여 채택한 측정방식을 답습하여 내적 귀인(internal attribution), 확산 귀인(global attribution), 지속 귀인(stable attribution)을 7점 척도로 이루어진 3개의 문항에 의하여 측정되었다. 응답자들은 현재 실력으로 갈 수 있는 학교/학과와 가고 싶은 학교/학과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경우, 그 괴리가 존재하게 된 원인이 “전적으로 내 탓”인지 아닌지(내적 귀인), 그 원인이 “대학입시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닌지(확산 귀인),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인지 아닌지(지속 귀인)를 평정하였다. 이 귀인양식에 관한 문항들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Bandura and Wood(1989)에 의하면 지각된 통제가능성은 통제대상이 가지는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변화용이성(changeability), 그리고 조작에 대한 반응민감성(responsiveness)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가 대학입시를 치러야할 당시의 자신의 학업실력을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는지(예측가능성), 자신의 학업실력을 향상시키는 일이 주관적으로 얼마나 쉽게 혹은 어렵게 느껴지는지(변화용이성), 학업실력이 객관적으로 노력에 따라 민감하게 향상/퇴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반응민감성)를 각각 7점 척도에 평정하게 하였다. 이 지각된 통제 가능성에 관한 문항들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3. 절차

질문지들은 해당 고등학교의 상담주임교사가 학

급단위로 수업시간중에 학생들에게 실시하였다. 질문지에 대한 응답을 완료하는데 약 한시간 가량이 소요되었다.

결 과

SSI, RFL, BDI, CDI, 그리고 BHS의 상관계수들과 학년별 평균 및 표준편차가 표1에 제시되어 있다. BDI점수에서만 학년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들이 모두 높은 상관관계들을 보이고 있으므로, SSI와 RFL점수를 합하여 자살생각(SUIIDEA)의 점수를, BDI, CDI, 그리고 BHS 점수들을 합하여 우울증(DEP) 점수를 산출하였다. 각 개별적인 척도의 단위가 서로 다르므로, 점수들을 우선 표준점수로 모두 변환한 후, 각 척도의 표준화된 점수들을 합하여 SUIIDEA와 DEP 점수들을 산출하였다. SUIIDEA와 DEP 사이의 상관계수는 0.72였다.

1. 분석 I

위에서 기술한 절차에 따라 산출된 우울증 점수(DEP)에 대한 대학입시준비에 관련된 지각된 스트레스의 효과가 귀인양식에 의해 상호작용되는지 아니면 지각된 통제가능성에 의하여 상호작용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

였다. 대학입시에 관련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항목들 중 학업문제와 장래문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의 평정치를 합하여 산출하였다(COLLSTRS). 귀인양식은 내적 귀인(INTATTR), 확산 귀인(GLBATTR), 그리고 지속 귀인(STBATTR) 등 세개의 평정치를 하나의 변인군으로 다루었다. 지각된 통제가능성 역시 예측가능성(PREDICT), 변화용이성(CHANGE), 반응민감성(RESPONS) 등 세개의 평정치를 하나의 변인군으로 다루었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가 표2에 제시되었다.

표2에서 방정식 2와 방정식1의 R^2 차이는 학업스트레스와 귀인 양식이 우울증에 대하여 가지는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내고, 방정식 3과 방정식 1의 R^2 차이는 학업스트레스와 통제가능성이 우울증에 대하여 가지는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낸다. 3학년에서 이 두가지 상호작용효과들은 모두 유의미하였다($F(3, 155)=7.83$; $F(3, 155)=5.79$). 그러나 전체 학년에 대해서는 오직 통제가능성과의 상호작용만이 유의미 하였다($F(3, 448)=3.67$). 반면에 1학년과 2학년에서는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다.

두개의 상호작용 모두가 유의미한 3학년에서, 통제가능성을 나타내는 세개의 변인중 변화용이성(CHANGE)이 학업스트레스와 유의미하게 상호작용하였고($t(155)=-2.60$), 귀인양식을 나타내

표1. 자살생각과 우울증 점수들의 상관계수 및 학년별 기술통계

변 인	상관계수	1학년	2학년	3학년	F ^a
		평균(SD)	평균(SD)	평균(SD)	
SSI	1.00	11.66(6.66)	12.04(6.47)	11.86(6.13)	0.26
RFL	0.57 1.00	5.96(5.05)	6.63(5.22)	6.08(4.97)	1.14
BDI	0.56 0.58 1.00	14.29(8.23)	15.03(8.26)	17.09(9.04)	6.12**
CDI	0.52 0.56 0.79 1.00	14.13(7.28)	14.15(7.53)	14.93(7.79)	0.62
BHS	0.37 0.62 0.47 0.44 1.00	4.72(4.33)	5.43(4.23)	5.69(4.54)	2.14

^a 통계검증은 무의미코딩(dummy coding)에 의한 회귀분석을 하였다.

** $p<.01$

표2. 학업스트레스가 우울증에 대하여 귀인양식 및 통제가능성과 가지는 상호작용효과검증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방정식	독립변인	R ²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1	스트레스 ^a	0.084	0.079	0.058	0.082
2	스트레스, 귀인 ^b	0.256	0.119	0.145	0.161
3	스트레스, 통제 ^c	0.167	0.188	0.101	0.143
4	스트레스, 귀인, 통제	0.306	0.205	0.183	0.206
5	스트레스, 귀인, 통제, 스트레스*귀인	0.317	0.207	0.292	0.218
6	스트레스, 귀인, 통제, 스트레스*통제	0.311	0.218	0.265	0.226
R ² 차이 (semi-partial R ²)					
방정식2-방정식1(귀인효과)		0.172**	0.040	0.087**	0.079**
방정식3-방정식1(통제효과)		0.083**	0.109**	0.043	0.061**
방정식4-방정식1(귀인및통제효과)		0.222**	0.126**	0.125**	0.124**
방정식5-방정식4(귀인의 상호작용효과)		0.010	0.002	0.109**	0.020*

모든 R²들은 $\alpha=0.0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a 스트레스는 한개의 변인이다.

^b, ^c귀인과 통제는 각각 세개씩의 변인들로 구성된 변인군들이다.

* $p<.05$ ** $p<.01$

는 세개의 변인중 내적 귀인(INTATTR)이 학업스트레스와 유의미하게 상호작용하였다($t(155)=4.52$). 그 상호작용들의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CHANGE와 INTATTR, 그리고 학업스트레스를 각각 중앙치(median)를 중심으로 이분화하고, 각 집단에서의 우울증 점수의 평균을 그림1에 도표로 제시하였다.

그림1을 보면 두가지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극히 미미한 효과밖에 가지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림1에서 한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Baumeister(1990)의 이론이 가정하는 것과는 반대로 내적 귀인을 하는 응답자들의 우울증이 외적 귀인을 하는 응답자들의 그것보다 낮다는 것이다.

학업실력이 객관적으로 쉽게 변화시킬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에게 있어서 우울증에 대한 학업스트레스의 효과가 그렇지 않

게 생각하는 응답자들에 있어서의 그 효과보다 다소 큰 경향이 그림 1에서 관찰된다.

귀인양식과 통제가능성이 학업스트레스와 가지는 상호작용효과는 실질적인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부족하였으나 그들의 주효과(방정식 4- 방정식 1)는 모든 학년에서 높은 수준의 유의도를 보였다.

2. 분석II

고등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대하여 가지는 효과가 우울증에 의해서 완벽하게 매개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이 경로분석에는 위에서 기술한 SUIIDEA와 DEP 점수들 이외에 STRESS 점수가 이용되었다. STRESS 점수는 13개의 스트레스 항목들에 대한 반응을 모두 합한 점수이다. 이 세개의 변인들을 이용하여 그림 2의 모형이 검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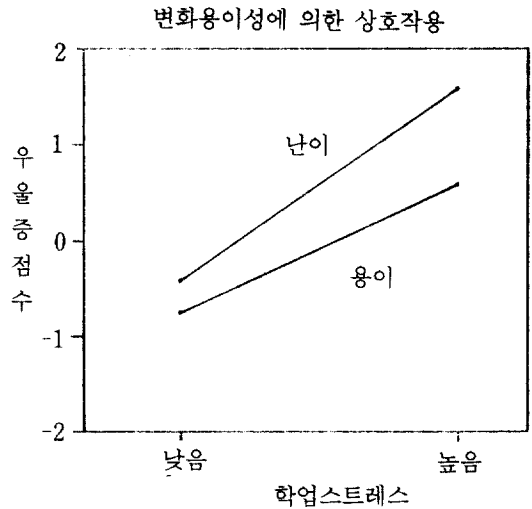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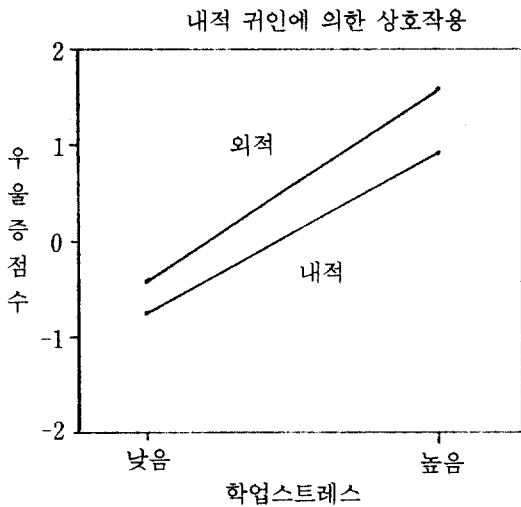


그림 1. 3학년의 우울증에 대한 학업스트레스와 내적 귀인 및 변화용이성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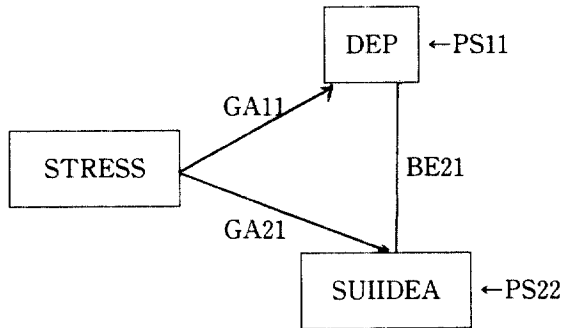


그림2. STRESS, DEP, SUIDEA의 관계에 관한 경로모형

자료를 설명하는 능력 (goodness-of-fit)에 있어서 그림2의 경로 GA21이 0으로 간주된 모형(매개 모형)이 그림2에 표현된 원래의 모형(포화모형)에 비하여 뒤지지 않는다면, 절약의 법칙 (principle of parsimony)에 의하여 경로 GA21이 0으로 간주된 매개모형이 선호되고, 따라서 자살생각에 대한 스트레스의 효과가 완벽하게 우울증에 의해서 매개된다고 간주된다. 그러나 포화모형 (saturated model)은 자유도가 없는 모형이므로, 실제로 있어서는 매개모형의 합치도 지수인 χ^2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 매개모형이 기각되고, 그것이 유의

미하지 않으면 매개모형이 기각되지 않는다. 매개 모형의 자유도는 1이다. 분석에는 선형구조관계 (Linear Structural Relationship: LISREL-7) 프로그램이 이용되었고, 분석된 자료는 상관계수들이었으며, 계수산출은 최소자승화 방식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1학년에서는 매개모형의 χ^2 이 16.24로서 매개 모형이 기각되었다. 반면에 2학년과 3학년에서는 매개모형의 χ^2 이 각각 0.50과 0.05로서 기각되지 않았다. 끝으로 1, 2, 3학년을 모두 고려한 경우는 매개모형의 χ^2 이 5.96로서 기각되었다. 따라서

1학년과 전체학년에 대해서는 포화모형이 선호되고, 2학년과 3학년에서는 매개모형이 선호된다. 각 학년에서 자료에 대한 설명력이 좋은 모형에서 산출된 경로계수 값들이 표3에 제시되었다.

표3. STRESS, DEP, SUIIDEA의 경로계수

경로계수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GA11	0.556	0.464	0.482	0.504
GA21	0.262	0.000 ⁺	0.000 ⁺	0.090
BE21	0.602	0.678	0.737	0.671
PS11	0.691	0.784	0.768	0.746
PS22	0.395	0.541	0.458	0.480

⁺ 고정된 (fixed) 계수값

3. 분석

고등학생들의 자살생각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지각된 스트레스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SUIIDEA를 종속변인으로, 그리고 13개의 스트레스 항목들을 독립변인들로 가지는 단계별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수행하였다. 독립변인들이 단계별 회귀방정식에 포함되는 기준은 여과된 R^2 (partial R^2)의 유의도 수준 $\alpha = 0.05$ 를 채택하였다. 이 기준에 의해서 회귀방정식에 포함되지 못하는 변인들은 그 변인들이 회귀방정식에 포함되는 경우 그전에 포함된 변인들이 설명하는 자살생각의 변량에서 더이상 의미있는 정

도의 변량을 추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계별 회귀분석의 결과가 표4에 제시되었다.

전체적으로 지각된 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자살생각의 변량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분석 II에서의 결과와 상통하는 바가 있다(논의를 참조). 1학년에서는 5개의 스트레스 요인들이 자살생각의 변량중 약 37%를, 2학년에서는 두개의 요인들이 약20%를, 3학년에서는 두개의 요인들이 약13%를 각각 설명하고 있다. 전체학년을 고려하는 경우 자살생각변량의 약19%가 부모와의 갈등, 외모에 대한 불안, 이성문제, 선생님과의 갈등의 순으로 4개의 지각된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서 의미 있게 설명된다.

앞서 기술한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학업문제나 장래문제에 의한 스트레스가 모든 학년에서 표4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4에 요약된 단계별 회귀분석의 결과는 각 스트레스 상호간의 상관관계가 여과된 후에 산출된 각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참고로 학업문제와 장래문제가 다른 스트레스요인들에 대한 고려 없이 독자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살생각의 변량(R^2)은 1학년에서 6% ($F(2, 146) = 4.96, p < .01$), 2학년에서 7% ($F(2, 165) = 6.15, p < .01$), 그리고 3학년에서 5% ($F(2, 175) = 4.38, p < .01$)로서 전 학년에서 유의미하였다.

표4.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 관한 단계별 회귀분석

단계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요 인	R^2	요 인	R^2	요 인	R^2	요 인	R^2
1	부 모	0.20	부 모	0.17	이 성	0.09	부 모	0.13
2	외 모	0.28	선생님	0.20	선생님	0.13	외 모	0.17
3	동성친구	0.32					이 성	0.18
4	건 강	0.35					선생님	0.19
5	이 성	0.37						

논 의

학습스트레스가 우울증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귀인양식과 더 강하게 상호작용하는지 아니면 통제가능성과 더 강하게 상호작용하는지는 본 연구에서 일관성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3학년에서는 두개의 상호작용효과가 모두 유의미하였고, 전체 학년에서 통제가능성과의 상호작용만이 유의미하였으나 그 상호작용이 설명하는 우울증의 변량은 고작 2%에 지나지 않아서 실질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정도이다. 귀인양식과 통제가능성이 학습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는 효과의 우열을 가늠하기 힘든 이유에 대한 한가지 가능성은 Seligman의 학습된 무기력의 수정이론(Abramson et al. 1978)이 암시하듯이 귀인과 통제가능성이 서로 배타적인 구성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지각된 스트레스에 대한 귀인이 통제불가능한 요인, 예를 들면 IQ 혹은 부모와의 갈등에 귀착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귀인양식과 통제가능성을 통틀어 그 둘을 함께 지각된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적 이해”로 개념화하면 그들이 1, 2학년에서는 우울증에 대하여 지각된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지 않는 반면에 3학년에서는 상호작용한다는 결과(표2)는 흥미로운 사실을 암시한다. 즉, 지각된 스트레스에 대한 원인귀착이나, 그것에 대한 통제가능성 평가는 어느 정도의 인지적 성숙도를 필요로 하는 듯하다.

본 연구에서 자살생각 및 우울증에 대한 학년(혹은 나이)효과를 검증해 본 결과 자살생각에서는 학년차이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BDI에 의해 측정된 우울증에서만 학년차이가 발견되었다(표1).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에 연령차(혹은 학년차)가 없게 나온 결과는 기존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다(박광배와 신민섭, 1990; Shaffer and Fisher, 1981; Brent et al. 1986; Ryan et al. 1987). 그러나 흥미롭게도, Shaffer and

Fisher(1981)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살생각에는 연령차가 없으나 우울증에서는 연령차가 있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는데, 이것 역시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이 결과들은 우울증이 인지적 정보처리의 결과라고 가정하면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암시하는 바가 많다. 고등학교 저학년들이 고학년들보다 우울증이 상대적으로 약한데도 불구하고, 자살생각은 비슷한 정도로 한다는 것은 저학년의 자살생각은 인지적인 정보처리 이외의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있음을 암시한다.

또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 사이에서 실제로 성공적인 자살을 수행하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IQ가 월등히 높다고 한다(Shaffer, 1974; Brent and Kolko, 1990). 이 사실은 우선 인지적인 우울증이나 절망(hopelessness)이 실제 자살에 대한 전제조건이라고 보는 견해(Baumeister, 1990; Weishaar and Beck, 1990)를 지지하고 있다. 즉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이 나이가 많은 청소년들과 비슷한 정도로 자살생각을 하지만 실제 자살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지적 성숙도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인지적 성숙도가 낮아서 지각된 스트레스에 대한 원인귀착이나 통제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속적인 우울증이나 절망이 유발되지 않고, 따라서 실제의 자살시도까지는 유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의 결과중 우울증에 대한 학습스트레스와 귀인 및 통제가능성의 상호작용효과가 3학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반면 저학년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지각된 스트레스에 대한 원인귀착이나 스트레스 자체에 대한 통제가능성의 평가는 비교적 고도의 인지적 정보처리능력을 필요로 한다고 보아진다. 그러나 저학년에서는 학습스트레스에 대한 그러한 인지적 정보처리가 수행되고있지 않고, 따라서 학습스트레스가 귀인양식이나 통제가능성과 상호작용하여 우울증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고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 지각된 스트레스에 관련된 정보들을 인지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미숙할지도 모른다는 가정은 분석 II에서도 일관성있게 발견되었다. 앞서 예측하였듯이, 자살생각에 가지는 지각된 스트레스의 효과가 고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인지이론에 기초한 우울증 점수들에 의해 완벽하게 매개되지 못하는 반면에, 고학년에서는 지각된 스트레스의 효과가 일단 인지적 우울증에 흡수되고 그 우울증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양상을 보였다.

고등학교 고학년들의 자살생각이 저학년들의 그것보다 더 인지적인 정보처리의 결과라는 결론은 분석 III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들이 설명하는 자살생각의 변량이 고학년보다 저학년에서 높다. 이것은 지각된 스트레스의 즉각적이고도 직접적 효과(direct effect)가 저학년에서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고학년들은 스트레스가 지각되어도 즉각적으로 자살생각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하여 인지적인 이해노력을 하고 그 결과 우울증 및 절망감에 이르면 비로서 자살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전략에 있어서 피상담자의 나이 혹은 인지적 성숙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나이가 비교적 많거나 IQ가 높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Weishaar and Beck (1990)이 제안하듯이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사고를 갖도록 도와주고, 동시에 인지적 경직성(cognitive rigidity), 흑백사고(dichotomous thinking)등을 개선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반면에 나이가 비교적 어리거나 IQ가 낮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지각된 스트레스의 직접적 효과를 줄여줄 수 있는 조치, 예를 들면 정서적 따뜻함과 안도감 및 사회적인 지지(social support)를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분석 III에 나타난 결과는 전체적으로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을 많이 유도하는 스트레스 요인들은 부모, 이성, 선생님, 그리고 1학년의 경우 동성친

구 등의 대인갈등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4에 의하면 여기에 외모가 포함되는데, 외모는 직접적인 대인갈등 요인은 아니지만 비교적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의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요소이다. Shaffer(1974)에 의하면 자살을 촉발하는 요인들중 실제 자살사례들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은 대인갈등(interpersonal conflict)이라고 한다. 그 밖에 Brent et al.(1988)과 Shafii(1986)도 자살을 유발하는 요인으로서 대인갈등을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다. 한편 Blumenthal and Kupfer(1988)는 특히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모욕감(humiliation)이 중요한 자살촉매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은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모욕감이나 수치심에 의해 크게 영향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분석 III의 결과에서 한가지 주목된 사실은 학업문제와 장래문제가 독자적으로는 자살생각에 대하여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면서도, 다른 지각된 스트레스 요인들과 함께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경우에는 다른 스트레스 요인들이 설명하는 자살생각의 변량에 더 추가로 의미있는 정도의 변량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사실이 암시하는 바는 분석 III에서 자살생각에 대하여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 대인갈등의 많은 부분이 학업문제나 장래문제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즉, 학업문제와 장래문제가 부모와의 갈등이나 선생님과 갈등을 유발하고, 그러한 대인갈등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모형이 추정된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이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모욕감이나 수치심의 근원은 그 대인관계의 대상이 부모 혹은 선생님인 경우 학업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이성관계에서는 외모가 청소년들의 그러한 모욕감, 수치감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부모나 선생님들이 고등학생들의 학업문제를 다루는 경우 가능하면 그들로 하여금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갖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론

자살생각은 실제 자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신민섭 et al., 1991; Brent et al., 1986; Pfeffer et al., 1979; Smith and Crawford, 1986). 더군다나 정신건강 및 적응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메카니즘으로서의 자살생각은 자살행위에 비해서 학문적으로 결코 덜 중요하거나 덜 흥미로운 현상이 아니다. 자살생각의 기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예방할 수 있으면 궁극적으로 자살을 예방하게 될 것이다. Baumeister(1990)의 자살이론은 자살충동에 이르는 인과과정이 궁극적으로 스트레스로부터 시작한다는 가정을 한다. 즉, 기대상황과 현실상황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면 그로부터 스트레스가 유발되고, 그 스트레스가 몇단계를 거쳐서 자살충동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를 한국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한 중요한 결론은 나이가 어리거나 인지적 성숙도(e.g., IQ)가 낮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경험되는 스트레스가 인지적 이해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면에, 비교적 나이가 많거나 인지적 성숙도가 높은 청소년은 지각된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적 정보처리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살생각이 영향받는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살생각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청소년 상담은 나이와 인지적 성숙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이가 많거나 인지적 성숙도가 높은 청소년에게는 현실에 대한 사고방식을 개선해주는 노력이 효과적인 반면에, 나이가 어리거나 인지적 성숙도가 낮은 청소년에게는 정서적인 위로와 안정감을 주는 것이 좋다. 본 연구의 자료가 시사하는 또하나의 중요한 결론은 한국의 청소년들의 경우 자살생각이 주로 부모, 이성, 선생님과의 대인갈등에서 유발되고, 특히 이러한 대인

갈등에 학업문제와 외모가 큰 장애요인이 되는 듯하다. 따라서 부모나 선생님이 고등학생들의 학업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모델감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고, 또한 이성문제에 있어서 외모 때문에 생기는 모델감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 박광배와 신민섭(1990). 고등학생의 대학입시목표와 자살생각.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 20-32.
-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와 김중술(1990). 자살성향에 관한 연구: 우울-절망-자살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 20-32.
- Abramson, L.Y., Seligman, M.E.P., and Teasdale, J.D.(1978). Learned helplessness in humans: Critique and reformul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7, 49-74.
- Bandura, A. and Wood, R.(1989). Effect of perceived controllability and performance standards on self-regulation of complex decision ma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805-814.
- Baumeister, R.F.(1990). Suicide as escape from self. *Psychological Review*, 97, 90-113.
- Beck, A.T.(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oebner Medical Division, Harper & Row.
- Beck, A.T., Kovacs, M., and Weissman, A.(1979).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343-352.
- Beck, A. T. and Weissman, A. (1974). The measurement of pessimism: The hopelessness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861-865.
- Blumenthal, S.J. and Kupfer, D.J. (1988). Overview of early detection and treatment strategies for suicidal behavior in young peopl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7, 1-23.
- Brent, D. A., Kalas, R., Edelbrock, C., et al. (1986). Psychopathology and its relationship to suicidal ideat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5, 666-673.
- Brent, D.A. and Kolko, D.J. (1990). The assessment and treat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t risk for suicide. In Susan J. Blumenthal and David J. Kupfer (eds.), *Suicide Over the Life Cycle*. Washington: American Psychiatric Press.
- Brent, D. A., Kupfer, D. J., Bromet, E. J., et al. (1988). The assessment and treatment of patients at risk for suicide, In Francis, A. J. and Hales, R. E. (eds.), *American Psychiatric Press Review of Psychiatry*, Washington: American Psychiatric Press.
- Hyland, M.E. (1987). Control theory interpretation of psychological mechanisms of depression: Comparison and integration of several theories. *Psychological Bulletin*, 102, 109-121.
- Kovacs, M. (1981). Rating scales to assess depression in school aged children. *Acta Paedopsychiatrica*, 46, 305-315.
- Linehan, M.M., Goodstein, J.L., Nielsen, S.L., and Chiles, J.A. (1983). Reasons for staying alive when you are thinking of killing yourself: The reasons for living invent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276-286.
- Pfeffer, C.R., Conte, H.R., Plutchik, R., et al. (1979). Suicidal behavior in latency-age childre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18, 679-692.
- Ryan, N.D., Puig-Antich, J., Ambrosini, P., et al. (1987). The clinical picture of major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rch Gen Psychiatry*, 44, 854-861.
- Seligman, M.E.P., Abramson, L.Y., Semmel A., and Baeyer, C.V. (1979). Depressive attributional styl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8, 242-247.
- Shaffer, D. (1974). Suicide in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Child Psychol Psychiatry*, 15, 275-291.
- Shaffer, D. and Fisher, P. (1981). The epidemiology of suicide in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0, 545-465.
- Shafii, M. (1986). Psychological autopsy study of suicide in adolescents. Paper presented at the Child Depression Consortium, St. Louis, MO, October.
- Smith, K. and Crawford, S. (1986). Suicidal behavior among "normal" high school students. *Suicide Life Threat Behavior*, 16, 313-325.

Weishaar, M.E. and Beck, A.T. (1990).
Cognitive approaches to understanding
and treating suicidal behavior. In Susan
J. Blumenthal and David J. Kupfer

(eds.), *Suicide Over the Life Cycle*.
Washington: American Psychiatric
Press.

PERCEIVED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Kwang B. Park

Min Sup Shin

Department of Psychology
Choongbuk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nd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perceived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led to two major conclusions. Stress experienced by younger or cognitively immature adolescents could influence suicidal ideation without cognitive processing of the information about the source and the controllability of stress. On the other hand, older or cognitively mature adolescents may try to understand the nature of stress, and if the understanding is unfavorable, the stress may increase suicidal ideation. The second conclusion is that suicidal ideation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may be associated mostly with interpersonal problems involving parents, teachers, and opposite-sex peers. Academic difficulties and dissatisfaction with own physical appearance may greatly contribute to those interpersonal problems.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for the prevention of adolescent suicide were discussed.

부 록

1. 스트레스 항목

당신은 다음의 문제들에 의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으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문제들에 대하여 당신이 전혀 괴롭지 않게 느낄 때는 1에, 몹시 괴롭게 느낄 때는 9에, 그리고 그 중간일 때는 1과 9사이의 적당한 숫자에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전혀 괴롭지않다	그 저 그렇다	몹 시 괴롭다
건강문제	1...2...3...4...5...6...7...8...9		
외모에 대한 불만	1...2...3...4...5...6...7...8...9		
성격에 대한 불만	1...2...3...4...5...6...7...8...9		
지능에 대한 불만	1...2...3...4...5...6...7...8...9		
부모님과과의 갈등	1...2...3...4...5...6...7...8...9		
선생님과의 갈등	1...2...3...4...5...6...7...8...9		
형제와의 갈등	1...2...3...4...5...6...7...8...9		
학업문제	1...2...3...4...5...6...7...8...9		
경제적 문제	1...2...3...4...5...6...7...8...9		
친구(동성)문제	1...2...3...4...5...6...7...8...9		
이성(異性)	1...2...3...4...5...6...7...8...9		
장래문제	1...2...3...4...5...6...7...8...9		
성(性)에대한 욕구	1...2...3...4...5...6...7...8...9		

2. 귀인양식

귀하가 현재 실력으로 갈 수 있는 학교/학과와 가고 싶은 학교/학과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괴리가 생겨나게 된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 본인의 경우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가지만 적으십시오.

[내적 귀인] 현재 수준의 실력으로 갈 수 있는 학교/학과 사이의 괴리에 대하여 귀하가 위에서 말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존재하는 것은 본인의 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부모, 선생님, 친구 등)이나 환경 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확산 귀인] 위에서 귀하가 말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대학에 입학하는데에만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장해서 살아가면서 계속 그 문제가 다른 일에 대하여도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속 귀인] 위에서 귀하가 말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지금 일시적으로 생긴 것이고 얼마후 사라질 것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늘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통제가능성

[예측 가능성] 귀하는 대학입시를 치루어야할 당시의 자신의 학업실력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까?

[변화 용이성] 귀하는 자신의 현재 학업실력을 향상시키는 일이 주관적으로 얼마나 쉽게 혹은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반응 민감성] 대학입시를 위한 학업실력은 객관적으로 나 자신의 노력에 따라 민감하게 향상/퇴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노력을 좀 더하거나 덜 한다고 해서 그리 쉽게 변하지는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